



5면

"중소기업 살아야 전주 경제 발전"

전주매일

2022년 8월 24일 수요일 (음 7월 27일) 제308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정치권과 전북발전 협치 역량 강화

김관영 도지사, 한병도
민주 도당위원장과 간담회

김 지사 "특별자치도법
여야 발의 통과 기대감 커"

한 위원장 "법안 소위
의원들 공동 발의
중야당에 당론 추진 요청"



23일 김관영 도지사(사진 오른쪽)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전북발전 위한 소통·협치 강화를 다짐하며 간담회를 가진 뒤, 손을 맞잡으며 미소를 짓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와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간담회를 가지고 전북 발전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23일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발전방안을 찾아내고 실현시키는데 당·정이 더욱 힘을 모아가기로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 위원장께서는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등을 역임하면서 여·야 국회의원과 폭넓은 소통과 교류를 해 온 경험이 많이 축적된 분이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돼 도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덕담을 전하며 "최근 특별자치도 관련 법안도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님과 함께 발의해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전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주신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상속 공제제도 개편 등 전라북도와 관련한 수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전북 국회의원들 함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소통하자"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권적 주장에 그쳐서는 안 되고 결실

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안도 국회 법안소위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법안이 본회의를 꼭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 원내 대표에게도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안인 만큼 당론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지사와 한 위원장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유치를 비롯해 국가 공모사업 선정,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추진 등 현재 중점적이고 시급히 추진돼야 할 도정 현안들에 대해 거버넌스 역량을 높여 나가는 뜻을 모았다.

/김경수 기자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 강화"

김관영 도지사,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선임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제16대 대한민국의지사협의회 부회장에 선임됐다. 대한민국의지사협의회 제16대 임원단으로 부회장에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감사에 이장우 대전시장이 선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런 임원단 선임은 지난 19일 제50차 대한민국의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신임 이철우 협의회장(경북)에게 임원단 선임이 위임된 것에 따른 것이다.

협의회장은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해 전북·인천·대전 시도지사들의 임원단 참여를 통해 힘을 모으자고 부탁했고, 해당 시도지사들이 수락함에 따라

선임이 이뤄졌다. 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시·도 공동현안에 대한 대처와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간 수시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의지사협의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1999년 설립된 이래, 시·도 상호 간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문제 협의, 지방분권 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16대 임원단 임기는 2022년 8월 19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다. /김경수 기자

음식물 조리 중 화재 잦아

추석연휴 화재 '주의보'

최근 10년 도내서 120건 발생
주거시설 발생이 전체 27.5%

전북소방본부 "음식물 조리시
자리 비우지 않는 등 지켜야"

추석 연휴에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잦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 추석 연휴 동안 12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3명이 다치고 5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의 27.5%(3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야외화재 19.2%(23건), 차량화재 15.8%(19건)로 뒤를 이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45%(54건)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전기적 요인 20.8%(25건), 원인미상 12.5%(15건)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가정 내 음식물 조리가 늘어 음식물 조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 비율이 평소(27%)보다 2배 가량(50%) 높게 나타났다. 또 차량 통행도 늘어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 비율은 평소 9.3%에서 31.6%로 3배 이상 높았다.

이와 같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조리 시 자리 비우지 않기 △적정 온도에서 요리하기 △주방에 K급소화기 비치하기 △장거리 차량 운행 전 이상유류 점검하기 △운전 중 졸리면 쉬어가기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추석 연휴에는 음식물 조리, 교통사고 등 생활과 밀접한 화재가 평소보다 많이 발생한다"며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백제의 빛, 희망을 쬐다'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타, 익산서 내달 3일 개막

미디어아트 페스타를 문화유산과 자연, ICT기술이 결합한 융복합 미디어아트로 역사에 대한 직접 설명보다는 시각적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직관적 세계유산 체험의 장으로 기획했다.

넓은 미륵사지를 배경으로 미디어파사드, 300대의 드론라이트 등 총 16종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가득 채워 익산민의 헤리티지 나이트투어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우선 낮에는 미륵사지의 자연경관을 온전히 볼 수 있고 밤에는 문화유산의 경관을 살리며 최신기술을 접목한 미디어파사드로 압도적인 미디어아트 쇼가 상시 선보인다.

고해상도 프로젝션 맵핑을 보여주는 시그니처 미디어파사드 탑의 나라, 소망을 쬐다'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디지털로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향유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25명의 전문 무용수로 구성된 역동적 군무와 함께 실감미디어 퍼포먼스 '미륵의 땅, 천년의 시민'을 펼친다.

개막일인 9월 3일과 추석 명절 당일인 9월 11일에는 300대의 군집 드론라이트쇼가 미디어파사드와 함께 미륵사지의 밤하늘에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 밖에도 미륵사지 연지 주변에 다양한 야외 빛 조명 예술작품과 업사이클링 시민 참여형 설치미술,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환경친화적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타'가 익산 미륵사지 밤 하늘을 수놓으며 화려한 개막을 알린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익산 미륵사지가 올해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8개 지역 중 첫 개최지로 문을 연다.

익산시와 문화재청, 전라북도 공동 주최하는 2022 익산 미륵사지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타는 다음달 3일 개막을 시작으로 10월 3일까지 한 달간 선보인다. '백제의 빛, 희망을 쬐다'를 주제로 백제 최대사찰 미륵사의 의미하는 개인의 소망과 국가의 안녕·평화를 컨셉으로 진행된다. 시는 2022 익산 미륵사지 세계유산

△△ △△ ☀️ 🌊

그리고 반딧불이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

2022. 8. 27.토 - 9. 4.일

축제 문의 063-324-2440
http://tour.muju.go.kr

muju